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4호 【루게 제24372호】 주체102(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봉해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장정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력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대학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품격에 맞게 김정일군사연구원의 모든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군사연구원의 교육시설 뿐만아니라 야외 축구장과 룡구장, 배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실내사격관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 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마무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사교육의 최고전담인 김일성군사종합대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이 마감단계에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학에 김정일군사연구원이 선군시대의 이끈 교직원청사, 연구생청사, 강습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의 믿음직한 군사일군양성의 중심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소, 회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령도 기지인 김정일군사연구원을 일떠세우

와 보살피심속에서 창립되고 강화발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김정일군사연구원을 훌륭히 완공하리 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공군열성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가 보전말건 조선로동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제도옹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참가자들이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거운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로씨야의 소리》 방송,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명록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수관》을 찾으신 소식을 전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투일부수행에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표를 찾으신 소식, 주성호동무가 사업하는 선박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신 소식도 올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추수선수들이 계절에 구애없이 혼란과 경기를 원만히 하도록 하지만 추수경기장들에 질 좋은 인공잔디를 깔아주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전국의 추수경기장, 운동장들을 만경봉체육단의 인공잔디를 추수경기장처럼 꾸리자면 질 좋은 인공잔디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네 발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신 소식, 주성호동무가 사업하는 선박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보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쟁고위원회 결성

위대한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쟁고위원회 결성식이 6일 김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민주쟁고의 여러 정당, 단체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쟁고중앙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쟁고-조선친선 및 반대성협회 위원장 오메때 가스통 음보요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불매전을 발행하며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머지않아 인류는 세계자유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의 서거 2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대원수의 한평생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 세계자유화위업을 위해 바쳐진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

없이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세계자유화위업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결출한 정치가이신 김정일대원수께 다함없는 경도심을 표시한다.

김정일대원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길, 자주 길을 따라 진보적인인류는 변함없이 전진할 것이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당과류를 더 많이 생산하여 군인생활향상에 이바지하자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종업원들의 쫓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종업원들의 쫓기모임이 18일에 진행되었다.

인민무력부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배인 김해란의 보고에 이어 작업반장 리화란, 로동자들인 리경숙, 최옥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어머니날에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공장에 새기신 데 대하여 말하였다.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에서 위생성이 보장되고 자동화, 무인화가 실현되어 종업원들이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자랑하고싶은 본보기공장, 식료공장의 표준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고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공장로동계급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현지지도에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확신을 간직하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성과로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생산공정의 무인화, 무군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를 잘 관리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것이라고 말하였다.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인민군인들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한걸음이 떨쳐나설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높은 신 뜻의 불길을 더 많이 생산하여 군인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펼치신 강성번영의 새 력사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인민의 마음속에 오늘날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이 사무쳐왔다. 현명인민을 위한 남원을 안고서 불같은 애국헌신의 세계를 펼쳐치신 위대한 장군님, 이 땅에서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러 애국의 자욱을 뽐내며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들의 자욱에 그러도 력력히, 뜨겁게 빛발치셨던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빛이고 슬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입니다.》**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빛이고 슬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인 김정일애국주의! 그리고 열렬한 애국의 세계를 심장에 새겨안을수록 만단사원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두해 전 11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애국가공공장(당시)을 찾으신다. 좋은 날, 좋은 계절에 찾아오시어 되시련만 인민이 남북을 누리는 부강조국을 일떠세우시러 추위를 헤치고 오신 김정일대원수님, 김정은원수님이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어있는 천연석재자원을 캐내어 여러가지 종류의 고급건설재를 가공해내는 현대적인 동력공업공장의 모습을 돌아보시었다. 그리고는 이곳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적일것으로,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워도 만년대대로 건설하려는 공정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시며 이 공장야말로 만민에게 공정, 애국정신공정이라고

높이 불러주시었다. 수수천년 땅속에만 묻혀있던 돌들을 다 캐내어 우리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게 된것이 그러도 기쁘시어 창조물을 애국이라는 성스러운 부름과 함께 사랑과 정을 담아 불러주시는 어머니장군님, 쌓이고 쌓인 자신의 로고는 깊이 묻으시고 커가는 인민의 기쁨만을 그리보시며 환히 웃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대도 인민은 잊지 않는다. 절세위인들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있는 천연석재들을 더 잘, 더 많이 가공하고 질 좋은 동력공업제품들을 생산하여 한평생 인민을 위해 마음쓰시는 어머니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애국!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과 우리 원수님께서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천만의 심정속에 깊이 심어 주신 고귀한 념이었다. 그로써 열렬한 애국헌신의 자욱과 더불어 뜻깊은 부름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노르망강행군, 삼복철강행군! 현명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같은 애국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시대어이다. 몇해 전 이른 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길에서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있는데 대하여, 그 전례의 12월 천리마계장연합기업소를 찾으신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지퍼주시는데 이어 년초부터 중공업, 기업소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탄되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뜨거운 격정속에 일군들에게

신히 어려운것은 우리 장군님 헤치신 노르망강행군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평안북도의 곳곳에 이어 황해북도를 찾으신고 자강도의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며 대혁신, 대미약의 나배를 펼쳐주시었다. 그 길에서 새해를 맞으신 어머니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데 이어 또다시 눈덮인 험준한 길을 달리시어 강원도를 찾으신고 남포시와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찾으신고 강원도로 정력적인 령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우기를 바라는 인민의 념원은 그러도 절절히건넌던 눈덮인 마나던 길을 달리시어 북방의 철의 기차와 기계제작기, 철정평생산기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는데 이어 모든 추위를 헤치시고 자강도와 함경도를 찾으신고 여러 부서 사원을 지도하신 후 황해북도에 또다시 헌신의 자욱을 뽐내며 새겨가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물자그대로 빨치산이었다. 무려 몇달동안이나 려차에서 생활하시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타탄시키던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그러나 감동에 넘쳐있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미약의 불길을 더욱 드세차게 일으키시라 말씀하시어 탄곡이 이르시었다. 그러시고는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오직 이 하나의 뜻으로만 지향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이 하나의 뜻을 실현하는 길에 바치신 위대한 헌신이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한생을 쫓아내신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내놓지 않았고 하시면서 나 김정일우애 인민이 있고 김정일은 인민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더놓으시었다.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고 그 어떤 고생을 겪을지언정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봄빛만이 넘쳐나야 하고 인민은 언제나 행복만을 누려야 한다는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열렬한 마음이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부리가 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 그토록 절절히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금을 울린다. 나는 동무들과 같이 우리 혁명의 역센 부리가 되려고 한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누가 보곤 말진, 알아주진말진 줄기와 열매만을 위해 자기를 잘그리 바치는 부리, 그 부리가 되시어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보살펴주시고 조국을 부강하게 하시었다.

정령 열렬한 애국의 마음 안으시고 명실공히 인민을 위해 부리가 되시어 행복의 열매를 무르익혀 인민에게 안겨주시고 위대한 혁명의 창조자 바로 우리의 김정일대원수님이다. 오직 인민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력사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편편히 이어져 찬연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잘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이 땅에서 애국헌신의 자욱을 력력히 새기시었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심장을 불태우시며 눈부신 비약과 전진, 승리를 이룩하시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절절히 울린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나의 사상감을 소박한 시구로 표현한다면 **《홍이 되어 부리 되어주리라》**이다. ... 그것은 이 구절에 자기의 한몸을 잘그리 바치시라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을 깰것이었기때문이다. 실사대가 숨이 저 짧은 생을 산다고 하여도 그 생이 내 나, 내 민족을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는것이 나의 견해이다. ...

열렬한 그 뜻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치신 애국헌신의 길은 그 얼마나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진시찰의 강행군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수행하시면서 장군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성, 숭고한 인민적공포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어나가시며 애국의 자욱을 력력히 새기시었다. 오늘도 더욱 떨쳐가고계신다. 다짐이며 저 하늘의 삼태성도 조으는 길디길은 밤 찾으신 원수님들 마구락부의 이슬젖은 구내일이 우리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세계를 뜨겁게 전하고있다.

함으로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조각들 하나라도 가슴에 품어 열과 정으로 덮어주는 참다운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들께서는 장군님 현명하신 인민을 위한 길을 걸고계신다. 력사에 유례무이한 일심단결을 이룩한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존엄과 위엄을 내세우며 더욱 떨쳐가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지승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념원은 이 땅의 천만군민의 삶의 근본으로 투쟁과 전진의 표이다. 올해의 첫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스러운 애국의 자욱에 불같은 보탬의 자욱을 력력히 새겨가는 천만군민들의 투쟁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강성국가 건설은 밝아오리만것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우리 당력사에 새겨진 잊지 못할 이야기

혁명의 령도자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전사들의 최대의 영광이며 그런 삶은 더없이 아름답다.

태성 할머니의 토로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수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고있을 때 어머니수령님께 올린 태성할머니의 신념의 토로를 회고하시며 그의 말은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이 세상 끝까지 수령님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고, 수령님께서 지금도 그 때를 자주 회상하시면서 태성할머니가 가장 어려운 때에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신념과 의지의 화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중군기자였던 비전참정장수 리 언모에 대해 신념이 확고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그가 당과 수령이 있는가 하는 것이 혁명을 승리하고 조국을 반드시 통일된다는것을 믿고있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시어 장군님께서 리 언모의 수기를 놓고보아도 신념과 의지의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라 사상적격과 축적을 통하여 생기고 굳어진다라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시

혼연일체의 화폭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군인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대단히 좋다고, 우리 인민군인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말하자는것이 조선인민군 관원들인 박용철의 8형제가 자신께 보내온 편지의 내용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들려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속에 영광의 상상속에 오른 그들의 모습이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본사기자 한영민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공장을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함흥에 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가 19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태종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전광호 도인민위원회위원장, 김성봉 도농촌경제위원회위원장, 김대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2(1973)년 11월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가져오신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의 함흥공산정전설과 광포오리공장, 함흥발전기계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를 찾으신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여러 협회들을 지도하시면서 비날공, 비료, 경공업제품 등의 생산을 높이고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며 광산개발을 통이 크게 하고 채굴 및 선광설비들의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도의 전반사업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신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보고자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아래 지난 40년간 동안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났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단위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적연계가 더욱 밀접해졌다고 말씀하시었다.

비날공과 비료를 비롯한 화학공업과 기계공업, 마그네사제련공업 등의 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고 공업공업공정들의 현대화가 추진되어 생산능력이 높아졌으며 농업부문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강조하시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마시령속도》 창조에 불붙이시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시라 말씀하시어 언급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영광넘친 당기 휘날리며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의지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 대한 각계의 반향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심장의 맹세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나오자마자 천만군민의 심장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또 한곡의 기념비적명곡이 태어나 강산을 뒤흔들고있다. 노래의 구절구절에도 있듯이 우리의 당기, 그대는 우리의 희망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 고은 꿈 반발하는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 문헌히 빛발치는 우리의 승리이다. 위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당기에 대한 심오한 결핵이 소박하고 진실한 가사와 서정적인 선율을 통해 가슴저미어 흘러든다. 우리의 당기는 학생소년들에게 자기의 붉은 자락을 소년

만백아로 매어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감싸안아 보살펴주는 기발,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꿈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들의 상징이다.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당을 따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노래는 말그대로 노래 투쟁의 훌륭한 교과서이다. 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당과**

함께 숨쉬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모두당당히 나가야 한다.》 위대한 시대와 위대한 명곡을 낳는다. 경애하는 원수님 시대에 태어난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는 기념비적작품이다. 우리는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이 노래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여 나라 전체 단원들과 근로자들 누구나 이 노래를 사랑하고 이 노래를 힘있게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당의 참된 아들딸들로 준비시키 나가도록 하였다. 이 노래의 심오한 철학사상을 깊이있게 해설전하고 노래보급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노래가 대고조전투쟁들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도 이 노래를 애호하고 인민은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의 노래를 삶과 투쟁의 영원한 주제가로, 최후승리의 진군가로 높이 부르며 위대한 집권시대를 만반에 떨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재복

노래 하리라 위대한 당, 인민의 영광

우리 인민모두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 첫걸음마를 땀겨부러 걸음걸음을 보살피며 주고 잘난 자식, 못한 자식 모두 한몸에 안아 영웅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당을 노래한 또 한편의 명곡에 접한 우리 문화선인의 전제 일군들은 지금 크나큰 감격과 격정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명곡은 들을수록 인상감을 얻는것으로 하여 사람의 상상력을 풍부히 하여주고 창조적 활동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어머니당을 찬양한 노래는 수

없이 많다. 그 노래들은 해빛과도 같이 따사로운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 승리의 한길만을 뜻하며 걸어갈 천만군민의 맹세가 비껴있는것으로 하여 모두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곡들로 되였다.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나온 첫 순간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파고드는것으로 바로 이 노래가 우리모두가 믿고 따르는 어머니당의 품, 그 품을 영원히 빛내어갈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잘 반영하였기때문이다.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의지를 북돋아주는 명곡중의 명곡이다. 우리 일군들은 전제 창작가, 예술선수의 정신력을 총폭 불려보아도 위대한 당을 따라 승리해온 크나큰 당과 환희가 느껴지고 당기의 펠릭임소리와 함께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참으로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천년만년 전해갈 삶의 찬가

노래로 시작되고 슬리하여 온 우리 혁명력사에 또 하나의 명곡이 태어나 시대를 격동시키고 있다.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고 모든 영광과 행복의 상징인 조선로동당기발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훌륭히 해명한 명곡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백승을 떨쳐온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령도아래 혁명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흔히 우리 당기에 대한 노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격과 투쟁력사, 불멸의 업적과 결부

되어 장엄하면서 또 무거운 표상으로도 안겨왔다. 그러나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평범하면서도 구체화한 시어와 선율로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나 자기자신의 생활과 운명을 당기와 가장 가깝게 밀착시켜 읊미하게 하고있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라고 애곡적인 친화력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된 노래는 당기의 의미를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미래, 고은 꿈 반발하는 행복과 같이 한없이 소중하고 친근한 세부적표현들로 구구함으로써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부르지 않을 수 없는 명곡으로 되였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 을 높이 모신고 인민의 리상을 눈부시게 꽃피우며 세계적변혁과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가고있

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진실하고도 투쟁적인 형상으로 된다. 노래의 매 구절구절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불보다 뜨거운 전우애를 나누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당을 따라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고 그 품에 맡긴 운명은 빛나게 영생하리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비치고자해도 버리고싶은 희열의 세계를 안겨주는 명구절들이다. 우리 작가동맹중앙위원회의 모든 작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시신 이 희한한 창조적 세계에 비추어 모든 창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그것이 그대로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이 되고 비약하는 인민의 기상이 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차영도

그 펠릭임은 우리의 행복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기느라면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어머니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총정

가 가슴저미듯 부풀어오른다. 우리라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정답고 다정한 어머니처럼

눈부시게 얻겨오는 당기, 조용히 귀 기울이면 우리의 고은 꿈과 모든 행복을 꽃피워주고 열매로 무익히허주기 위해 세월의 낮과 밤을 다 바쳐가는 어머니 우리 당의 불같이 뜨겁고 출기찬 열정의 펠릭임소리와 같은 우리의 당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시대에 태어난 또 하나의 명곡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대로 공지높이 구가하고있으며 무의 위업수행에 한몸을 다쳐 버릴때까지 우리의 피를 마구 흘리게 하였다. 우리의 삶과 투쟁의 길에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나뭇가지는 불멸의 우리 당기에 대한 찬가의 탄생은 지금 우리 김정승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을

풀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넘치게 하고있다. 당이 준 생명을 당을 위해 잘그리 바치며 세월의 끝까지 당의 뜻을 꽃피우려는 길에 한눈도 다쳐가려는것은 우리 공장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부르며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포성을 더욱 높이 울려가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였다. 나는 당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성장한 일군들처럼 평범한 날이나 준엄한 날이나 주체의 당기를 혁명의 기치로, 백승의 기치로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감으로써 영원히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길에서 끝없는 삶을 빛내어 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김정승평양방직공장 지매인 민일출



노르망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시면서 가져오신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본사기자 찍음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가 실현된 백점, 만점짜리 표준공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조선인민군 제 354호식료공장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이 선차적인 힘을 받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립기술로 생산을 늘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 354호식료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의 도에 맞게 생산공정을 자동화, 무인화하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연건축면적이 6900㎡인 공장의 생산면적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장을 돌아보면서 오늘 경제부문 일꾼들이 어떤 자세와 힘에서 어떤 실천력을 지니고 우리 당의 최첨단물파사상을 받들어나가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이 공장일꾼들의 안목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도 당이 바라는대로 통이 크게 작정된 팔장을 붙 때까지 실현하는 일 본새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이 공장일꾼들의 안목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도 당이 바라는대로 통이 크게 작정된 팔장을 붙 때까지 실현하는 일 본새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이 공장일꾼들의 안목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도 당이 바라는대로 통이 크게 작정된 팔장을 붙 때까지 실현하는 일 본새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이 공장일꾼들의 안목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도 당이 바라는대로 통이 크게 작정된 팔장을 붙 때까지 실현하는 일 본새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이 공장일꾼들의 안목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도 당이 바라는대로 통이 크게 작정된 팔장을 붙 때까지 실현하는 일 본새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현대화를 시대가 요구하는 높이에서

어느 단위에 가보나 생산공정의 현대화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고 실지 현실로 체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파 깊이는 같지 않고 받아안는 느낌도 다르다.

무엇때문인가. 시대를 보는 일꾼들의 안목,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는 일꾼들의 실력과 실천력에서의 차이로부터 오는 결과이다.

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려 흘러가는 사양생산공정도 볼만 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반죽 및 성형, 구이공정들이 빠른 속도로 맞물려들어가는 파자생산공정은 또 그것대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질량만큼 제품들을 포장하는 자동 포장공정은 또 어떠한가.

여기서도 생산자들의 모습은 볼수 없다. 종전에 생산자들이 하던 여러가지 일들을 모두 기계가 대신하고있었다.

무인화라는 이 전변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안받침해주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생산공정의 자동화이다.

공장의 자동화수준은 상당히 높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에 본보기공장, 식료공정의 표준공장, 백점, 만점짜리 공장이라는 값있는 평가를 주신것처럼 자동화된 생산공정들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동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수록 그것이 안고있는 최첨단수준의 폭과 무게를 충분히 느낄수 있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담보라면 컴퓨터에 의한 사양공정 자동조종체계, 파자공정 자동조종체계와 같은 첨단급의 프로그램적수단들은 그 기술적담보로 되고있다.

원료준비공정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공정들의 요소들은 모든 동작과정이 이 조종

되는것은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이 공장일꾼들의 안목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도 당이 바라는대로 통이 크게 작정된 팔장을 붙 때까지 실현하는 일 본새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이 공장일꾼들의 안목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도 당이 바라는대로 통이 크게 작정된 팔장을 붙 때까지 실현하는 일 본새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이 공장일꾼들의 안목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도 당이 바라는대로 통이 크게 작정된 팔장을 붙 때까지 실현하는 일 본새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은 바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 이 공장일꾼들의 안목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도 당이 바라는대로 통이 크게 작정된 팔장을 붙 때까지 실현하는 일 본새이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현대의 눈으로

공정에서나 원료준비는 첫 공정이지만, 단순한 것일지라도 복잡하고 소홀히 하면 생산은 물론 제품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것이 바로 원료준비공정이라고 할수 있다. 작업상특성으로부터 노력이 제일 많이 드는것이 이 공정인 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복잡한 기술적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상당히 큰 품을 들여야 하는것으로 하여 우리는 지난 시기 여러 단위에 대한 취재에서 일꾼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할 때 이 공정에서만 적지 않은 애를 겪는 실례도 목격할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공정의 일꾼들이 생산공정의 무인화를 자그마한 빈구석도 없이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통이 큰 설계도를 펼치고 파감하게 실천해왔는가를 잘 알수 있다.

원료준비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여러 생산공정들과 제품포장공정도 그러하다. 용해, 진공농축, 투입성형 및 백각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서 어떤 지평을 받고 움직이는가 하는것이다. 참모부와 기술준비실, 생산현장의 설비들이 어떻게 하나를 연결되어있다. 기술준비실에서 생산하여야 할 제품의 드로잉 조성을 분석한대 기초하여 매 공정별로 따르는 각이한 수값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놓는다. 참모부로부터 말을 통해 생산지령을 받은 설비들은 바로 그 수값들에 따라 자기의 동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화, 무인화는 오늘날 세계적 추세로 되고있다. 공장에 갖추어진 설비들도 훌륭하고 그 설비들이 자동화, 무인화라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에 의해 움직이고있는 사실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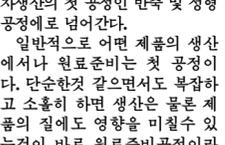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에서 어떤 지평을 받고 움직이는가 하는것이다. 참모부와 기술준비실, 생산현장의 설비들이 어떻게 하나를 연결되어있다. 기술준비실에서 생산하여야 할 제품의 드로잉 조성을 분석한대 기초하여 매 공정별로 따르는 각이한 수값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놓는다. 참모부로부터 말을 통해 생산지령을 받은 설비들은 바로 그 수값들에 따라 자기의 동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에서 어떤 지평을 받고 움직이는가 하는것이다. 참모부와 기술준비실, 생산현장의 설비들이 어떻게 하나를 연결되어있다. 기술준비실에서 생산하여야 할 제품의 드로잉 조성을 분석한대 기초하여 매 공정별로 따르는 각이한 수값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놓는다. 참모부로부터 말을 통해 생산지령을 받은 설비들은 바로 그 수값들에 따라 자기의 동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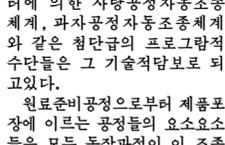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에서 어떤 지평을 받고 움직이는가 하는것이다. 참모부와 기술준비실, 생산현장의 설비들이 어떻게 하나를 연결되어있다. 기술준비실에서 생산하여야 할 제품의 드로잉 조성을 분석한대 기초하여 매 공정별로 따르는 각이한 수값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놓는다. 참모부로부터 말을 통해 생산지령을 받은 설비들은 바로 그 수값들에 따라 자기의 동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에서 어떤 지평을 받고 움직이는가 하는것이다. 참모부와 기술준비실, 생산현장의 설비들이 어떻게 하나를 연결되어있다. 기술준비실에서 생산하여야 할 제품의 드로잉 조성을 분석한대 기초하여 매 공정별로 따르는 각이한 수값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놓는다. 참모부로부터 말을 통해 생산지령을 받은 설비들은 바로 그 수값들에 따라 자기의 동작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술 준비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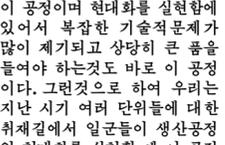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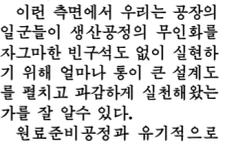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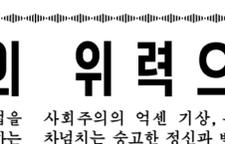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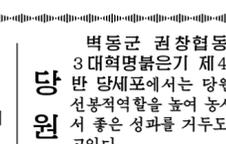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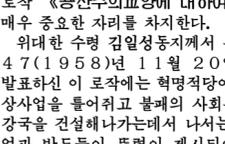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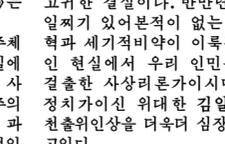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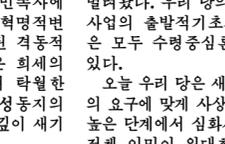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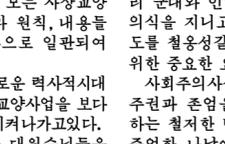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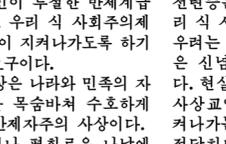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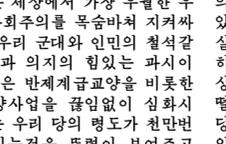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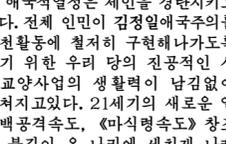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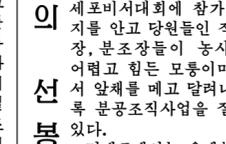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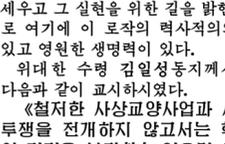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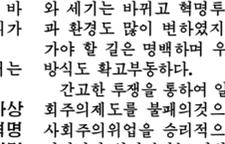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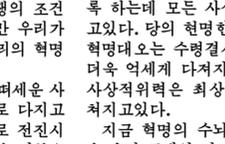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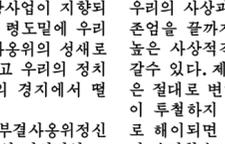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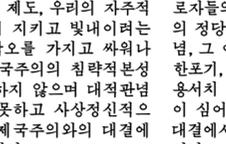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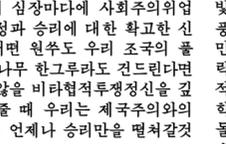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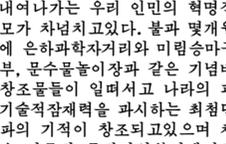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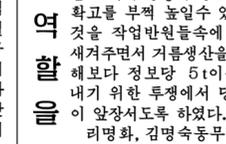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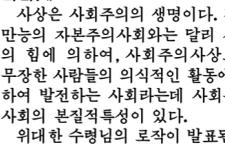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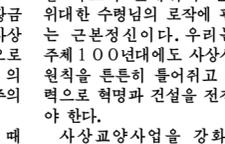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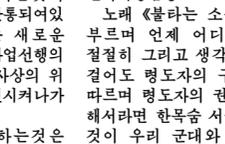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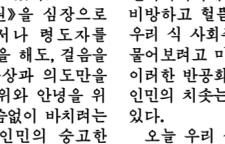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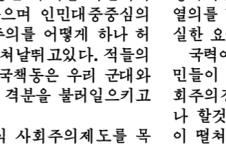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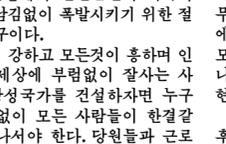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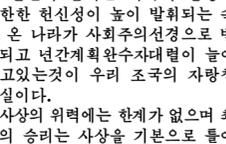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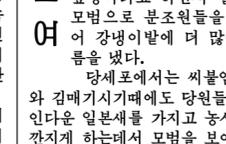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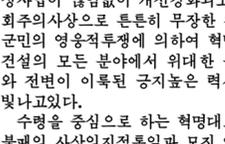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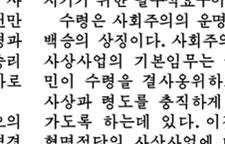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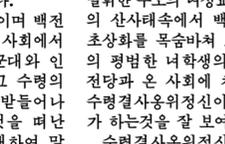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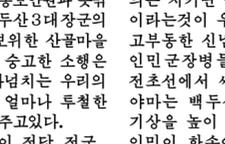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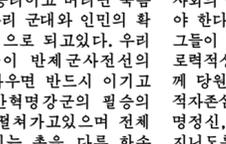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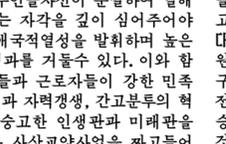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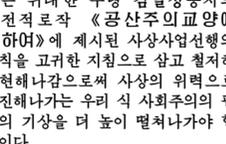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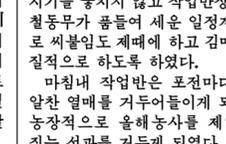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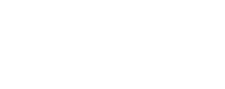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기 술 준 비 실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위업을 끝마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당의 투쟁의 정도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 로작 《공산주의의요강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8년 11월 20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는 혁명정당이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어있다.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

백두산혁명정신은 영웅적기상 떨치며 힘차게 전진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저한 지휘를 받들어...

산정에 올라가는 승리의 때아리

조선인민군 김창호소속부대에서

마식령전역에서는 지금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이 해마지마로선의 산도형성을 위한 투쟁에 열심이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에서

로운 일당백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라! 부대지휘관들은 한사람같이 애정된 기일보다 건설공사를 앞당겨 끝낼것을 결의해나섰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에서

들 혁명적열의를 믿고 안철동무를 비롯한 부대지휘관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웠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에서

《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과업이론한 단란한 날짓한 기간에 가열장전...

의료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

초산군 인민병원 의료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배방기관의 기본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치료배방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현대의적인 의료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치료배방사업을 개선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높이고 환자복을 높이고 있다.

병원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효능높은 고려약을 많이 생산하여 환자치료에 적극 리용하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를 안고 과학연구사업에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겨울철석탄생산준비를 빈틈없이

이 이미 확보된 탄부들에서 겨울철석탄생산준비를 실시하고 있다.

탄부에서는 겨울철전으로 예비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과 새 채굴지역을 형성하는 데 힘을 집중하면서 필요한 설비와 재재를 우선적으로 보충해주어 6개의 예비채탄장

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이 때를 맞아 탄차와 전차, 착암기, 불도끼, 전동기 등 탄광설비비를 짧은 기간에 걸쳐 직접으로 확보하여 동남부와 예비탄부확보사업도 예정되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

연산군 은덕원을 찾아서

겨울앞에 서서 한길 굽어진것 같던 기쁨을 금치 못해하고 있었다.

《저렇게 기뻐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인민의 봉사자된 긍지를 한껏 느끼곤 합니다.》

다녀보아야 신뢰하지 않았다. 그것은 버거워 태를 매 내오는 타르를 말끔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였다.

완강한 전개력을 지닌 인민의 참된 복무자

신천군량정사업소 지배인 류룡철동무

얼마전 신천군량정사업소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보육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기술자들과 함께 가스수송관과 저장조, 리프장치 등을 수습시키나 없었거나 갖추지 못한 타르제거장도를 찾기 위해 모색하였다.

수력원전도 화석연료도 되는 군의 실정에서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방도는 버거워 리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버거워 전기를 생산한다는 여러 단련이 있었다.

류룡철동무 (오른쪽에서 두번째)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장기체육강국건설시상을 받들고 체육부문의 110여개 단련에서 내놓은 140여건의 프로그래프와 120여점의 과학특정기재 및 체육기자재, 많은 체육의약품 및 영양제들이 전시회에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19일 빙상관에서 진행되었다. 관객부문 일군들, 체육부문 과학자, 기술자, 각급 체육단 과학기술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중무체육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현저적인 노력에 의하여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프로그래프들과 체육기자재, 의약품들을 창안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가자들이 체육의 모든 공정을 정보화, 과학화하고 체육과학기술의 높은 경지들을 개척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온과과영예를 빛내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과학기술성과자료를 돌아보았다.



변함없는 개척자의 모습

세포동관건설전투장에서 현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돌격대원들속에는 인민봉사총괄부대 김순영동무도 있었다.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늘 자신을 세워보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전투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달겨진 작업파제를 언제나 책임적으로 수행해온 그는 집단을 위해 전정을 바치고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늘 자신을 세워보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전투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달겨진 작업파제를 언제나 책임적으로 수행해온 그는 집단을 위해 전정을 바치고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늘 자신을 세워보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전투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달겨진 작업파제를 언제나 책임적으로 수행해온 그는 집단을 위해 전정을 바치고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늘 자신을 세워보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월남을 방문하였던 <로동신문> 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월남을 방문하였던 리경섭 부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로동신문> 대표단이 19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원석 로동신문사 부주필이 마중하였다.

리경섭 부주필이 마중하였다.

